

광주지검 제2차장검사 신설 목소리 높다

전국 7대 지검 중 유일하게 없어...규모 비슷한 대구 등과 대조

차장검사 1명이 항고사건만 1000건...법률서비스 질 저하 우려

호남권 중심도시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관할하고 있는 광주지방법청에서도 제2차장검사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광주지검은 전국 주요 7대 지방검찰청 중 유일하게 제2차장검사가 없는 곳으로, 현재 차장검사 1명이 매년 1000건에 육박하는 항고사건 처리는 물론 인사와 사건배당, 대외 홍보, 각종 행사 등 사무과 관련한 업무까지 도맡으면서 자칫 지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마저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광주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광주·인천·수원·부산·서울남부·대구지검 등 전국 7대 지방검찰청 중 차장검사 1명인 곳은 광주지검이 유일하다. 광주와 경제·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구지검은 지난 1997년 제2차장검사 직제를 신설·배치했다.

검사장 바로 아래 직급인 차장검사는 검사장을 보좌해 검사들을 지도·감독하고,

각종 사건처리를 비롯한 항고사건 검토, 인사, 사건접수·배당·집행·행사 등 사무과와 관련한 업무까지 모두 관장하는 등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차장검사에게 과중한 업무가 연속적으로 집중될 경우, 결국 조직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건 처리 시간 부족 등 업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실제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8개 부서, 검사 55명(보직 부장검사 제외)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6개 부서, 44.4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여기에 지난 2016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017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인권감독관까지 신설되면서 차장검사의 업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확장과 지역 경제규모의 성장 등에 따른 인구 및 범죄 증가 등도 업무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와 규모가 비슷하면서 제1, 제2차

■ 전국 주요 지검 조직 비교(2017년기준)

구분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정원(현원)	검사	부서수	차장검사 1인당 분담 부서	차장검사 1인당 분담 검사
서울중앙	1	3	33(31)	208(207)	29	9.7	69
광주	1	1	8(8)	61(55)	8	8	55
인천	1	2	11(11)	98(89)	11	5.5	44.5
수원	1	2	9(9)	92(82)	9	4.5	41
부산	1	2	9(9)	81(70)	9	4.5	35
서울남부	1	2	10(10)	76(71)	10	5	35.5
대구	1	2	10(9)	68(62)	9	4.5	31

장검사가 배치돼 있는 대구지검과 비교하면,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업무 강도는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대구는 차장검사 1명당 분담부서 4.5개 검사 31명으로, 광주의 절반 수준이다.

차장검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구속 구공판(재판 회부) 결재와 항고사건 검토 건수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2017년 9월 기준 광주는 각각 2130건, 1720건으로, 대구 2116건, 1538건보다 많다.

광주지검은 검사 및 수사관 1인당 사건 수에서도 대구지검보다 연간 50건 이상 많다. 최근 5년간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도 6.4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차장검사 직제를 늘리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는 5·18 왜곡 등 민주화운동 사건이 많은 곳으로, 전국 지검 가운데 업무강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전까지 광주에 제2차장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비슷한 규모인 대구지검처럼 제2차장검사 체제가 갖춰져야만 지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신안서 노인 잇따라 동사

폭설·한파에 곳곳 비닐하우스 등 붕괴 피해

폭설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노인들이 동사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전남에서는 비닐하우스·축사, 과수재배시설 등이 폭설로 주저앉는 등 농가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33분께 강진군 마량면 한 저수지 근처 농수로에 박모(여·79)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박씨의 조카가 발견했다.

박씨와 함께 살던 아들은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지난 10일 오후께 집을 나간 이후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 이웃들도 박씨 찾기 위해 나섰다. 이날 많은 눈이 내려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숨진 박씨가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1.7km 떨어진 곳으로 이곳은 박씨가 평소 자주 찾아가던 박씨의 친인척 묘지와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폭설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신안에서도 70대 노인이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오후 7시 13분께

신안군 팔금면 한 선착장에서 A(74)씨가 숨졌다. A씨도 한파 속에서 의식을 잃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폭설로 수역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5동과 축사 4동, 과수재배시설 2동, 퇴비공장 1동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광에서는 비닐하우스 2동이 피해를 입었고, 27.7cm의 눈이 내린 함평에서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3동이 파손됐다. 한 농가에서는 축사 지붕이 무너져 닭 1만5800마리가 동사하기도 했다.

무안의 퇴비공장에서는 퇴비를 저장하는 창고의 천장이 무너졌다.

전남도는 14일 현재 1억3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14일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금남로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다. 동구는 지역 13개 동을 순회하며 이면도로에서 제설·제방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중생 자매 성추행 학교전담경찰관 4년형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모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

신의 차량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이 학교 위기청소년 학생들을 상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동료 경찰관을 동행해야 하지만 A경위는 사적으로 피해학생들을 불러내 밥을 사주거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성추행 등 범행을 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자매가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정희 욕했다 긴급조치위반...40년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받은 망인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이 이뤄진 A(1987년 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자리에 앉지 못하자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놈만 잘살게 하고 서민은 죽게 만들

었다"고 말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긴급조치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담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균 감염 패혈증으로 사망"

경찰, 부검 결과 발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는 정상 성인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이지만 면역 저하자에게는 드물게 병원 감염을 일으킨다. 신

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패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국과수는 "주사제에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에 따라, 지질영양 결핍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제, 주치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택시에 귀금속 두고 내렸다...경찰 도움으로 되찾고 '안도'



○...40대 여성이 20여년간 소중히 간직해 온 금반지 등 남편의 선물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1시간여 만에 되찾아 안도의 한숨

○...14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여·46)씨는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은행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뒷자리에 600만원 상당의 금반지·목걸

이·팔찌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뜨리고 내렸다는 것.

○...김씨 도움 요청에 북부서 직원들은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해당 택시를 찾아 운전기사에게 연락한 끝에 지갑을 확보했는데, 김씨는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을 우려해 평소 남편이 사준 귀금속을 지니고 다니다 잃어버렸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3087 2017타경 5601 [병합]	1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390-1 영암상호콘스빌2차아파트 203동 1층 104호 59.8044㎡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	동소 390-1 영암상호콘스빌2차아파트 202동 1층 102호 59.8044㎡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3	동소 390-1 영암상호콘스빌2차아파트 202동 1층 101호 59.8044㎡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4	동소 390-1 영암상호콘스빌2차아파트 202동 1층 112호 59.8044㎡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5	동소 390-1 영암상호콘스빌2차아파트 202동 1층 101호 59.8044㎡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6	동소 390-1 영암상호콘스빌2차아파트 202동 1층 105호 59.8044㎡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17타경 6055	1	목포시 산정로298, 103동 10층 1001호 [면적 84.99㎡] 현대아파트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17타경6628(중산동, 현대아파트)
2017타경 6413	1	목포시 고하대로655, 101동 7층 709호 [산정동, 신안빌2차아파트] 59.31㎡	아파트	82,500,000 82,500,000	
2017타경 6826	1	무안군 흑산면 오리 142 231㎡	대	39,551,000 39,551,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	목포시 서산동 1-87 99㎡	대	32,501,720 32,501,7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7타경 2961	1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634 298㎡	답	12,754,400 12,754,4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636 823㎡ [현황일부제방및공유수원]	답	26,747,500 26,747,5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637 435㎡	답	19,270,500 19,270,5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906-1 292㎡	전	62,706,500 62,706,500	농지취득자격증명
	5	동소 643-3 261㎡	전	77,005,500 77,005,500	일괄매각, 각종지
	6	동소 643-4 1345㎡	전	77,005,500 77,005,500	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4721	1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906-1 292㎡	전	60,092,000 60,0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 307 1575㎡	전	10,080,000 10,0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5748	1	함평군 대동면 문교리 1657 2659.2㎡ [조영준지번 1/4전부, 지분매각]	답	8,642,400 8,642,400	농지취득자격증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5748	2	동소 71-2 1136㎡ [조영준지번 1/2전부, 지분매각]	대	9,088,000 9,088,000	제시외건물및수목매각
	1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680 1745㎡	답	13,611,000 13,611,000	현황유증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동소 900 1249㎡	답	10,741,400 10,741,400	현황전,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924 1074㎡	전	7,625,400 7,625,400	현황유증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930 1117㎡	전	7,930,700 7,930,700	현황유증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478-8 1094㎡	답	27,284,500 27,284,500	일괄매각, 각종지
	7	동소 산 109 2265㎡	임야	74,334,600 74,334,600	일괄매각, 목축18
2017타경 6680	1	신안군 장산면 도장리 328-1 2929㎡	답	38,007,200 38,007,200	일괄매각, 농지취
	2	동소 328-2 2700㎡	답	12,155,000 12,155,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6741	1	무안군 무안읍 고촌리 722 109㎡	대	30,133,000 30,133,000	일괄매각,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
	2	동소 723 221㎡	상중지	30,133,000 30,133,000	상
2017타경 6826	3	동소 96 307㎡	전	1,596,400 1,596,400	현황유증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163 282㎡	전	1,596,400 1,596,400	일괄매각, 목축5농
	4	동소 163-1 1㎡	전	1,750,000 1,750,000	일괄매각, 목축5농
	4	동소 163-2 28㎡	전	1,750,000 1,750,000	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52096	1	신안군 흑산면 오리길 1004-2 430㎡	대	10,750,000 10,750,000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
	2	동소 838 1154㎡	전	18,464,000 18,46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동소 신45 16066㎡ [김영수지번 1/2전부]	임야	9,639,800 9,639,800	지분매각
2017타경 52744	1	사용본거지:목포시 현산동70번길 10 301층 [산정동, 남도아파트] 등록번호:57주2311	자동차	16,500,000 16,500,000	분관장소:전남무안군일몰읍지장리 차일:스포티지 연식:2014
	1	목포시 연산동 1280-9 616.6㎡	공장용지	271,486,900 271,486,900	일괄매각, 유지권
2017타경 4189	1	목포시 삼천리89-3 637.2㎡ [김치형지번 2/3전부] 제시외 사무실 등 171.3㎡, 기계기구 2식(제시외건물및기계기구포함)	공장용지	2,287,800 2,287,800	일괄매각, 유지권
	1	신안군 안좌면 방월리 304-1 159㎡	답	2,287,800 2,287,800	일괄매각
2017타경 4721	1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906-1 292㎡	전	256,470,600 256,470,600	일괄매각, 수목및
	1	동소 906-1 1동400㎡ 2동184㎡ 제시외 축사 등 302.2㎡	대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0및제시외
	1	동소 906-4 422㎡	대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5제시외
	1	동소 906-5 115㎡	대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5제시외
	1	동소 906-5 1228㎡	대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5제시외
	1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124 가동호 392㎡ 제시외 축사 등 282.3㎡	축사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5제시외
2017타경 5861	1	동소 124 다동호 168㎡	퇴비사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5제시외
	1	동소 124 다동호 168㎡	퇴비사	256,470,600 256,470,600	제시외건물포함, 목축15제시외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5861	6	함평군 손불면 죽장리 907-1 1894㎡	답	232,320,000 232,320,000	일괄매각, 목축1현
	1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869-4 2353.5㎡	답	232,320,000 232,320,000	황마사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6192	1	함평군 나산면 제암리 1165 [제1종] 1425㎡	답	232,320,000 232,320,000	황마사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1	함평군 나산면 제암리 1165 [제1종] 1425㎡	답	232,320,000 232,320,000	황마사부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디자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판매표 조건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충족하는 최고거래수익인액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불합법할 경우로 인한 연봉부과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매각이 임박한 경우 제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최고거래금액에 매수보증금의 만분의 일(1%)을 초과한 경우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가격에서는 우선 매수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 기한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고거래금액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 매각기간: 2018. 1. 29. [월: 10]
- 매각장소: 1. 2018. 2. 5. [월: 18:00]
- 매각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회 특별판매표
- 매각방법
- 일괄매각에 관한 기밀유지명령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을 한 후에는 최고거래가격의 1% [최소 1000원]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발행의 자기인수 또는 환급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득계획을 제출한 문서(일괄 판매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 201 이상인 금액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일괄매각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거래금액에 입찰한 사람과 최고거래수익인액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0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만 반환을 허가함을 명시한다.
- 최고거래가격과 지분취득